

불법파견에 노동자 차별·노조탄압하는 포스코가 시민기업? 포스코 사측, 노동자 주주 20일 주총 참여 방해 ... 금속노조 “끝까지 싸우겠다”



포스코 사측이 노동자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막았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주주권 방해에 반발하며 포스코의 노조 탄압과 불법 경영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불법 경영, 노동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포스코가 노조 탄압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진짜 시민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소속 포스코지회, 포스코사

내하청지회 조합원 25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에 모였다. 선전전을 진행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포스코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주주 주총 참여를 차단했다. 이 같은 주주권 봉쇄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사측 통제로 주식
보유하고도 주총 참여 막혀**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악랄한 노동탄압, 환경 파괴, 노

동 차별을 일삼는 천박한 기업”이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엄상진 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포스코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포스코는 노동조합 차별을 멈추고 노동존중,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제기도 나왔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포스코는 19년 전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10배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환경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며 “해외에서도 산림을 훼손하고 이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포스코 사측에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명세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장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절반 수준만 지급하며, 법대로 해보라며 공문까지 보내왔다”고 밝히며 포스코 사측의 반복적인 임금 차별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포스코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전했다.

포스코 사측, 금속노조 조합원과 하청노동자에 임금 차별 지급

포스코 사측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상에서 각각 기본급을 월 10만 원 인상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 53명에게는 월 5만 7천 원가량 인상했다. 해당 53명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다. 포스코 사측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분류해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명세 지회장은 사측이 금속노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차별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포스코의 금속노조 탄압과 차별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우만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장은 “포스코 원청은 ‘시민기업’을 강조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조차 지급

하지 않고 차별한다”라며 “포스코 원청은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시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스코 광양과 포항제철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2만여 명이 일한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원청에 불법과건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원청에

시정 권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학자금과 복지 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100일을 넘기고도, 내란수괴 파면과 처벌은 고사하고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개선장군처럼 극우세력을 모으고 제2의 쿠데타를 꿈꿉니다.

현재가 언제 선고를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을 위해 투쟁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시 총파업을, 현재 결정이 늘어지면 경고파업을 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으로 만들 때입니다. 금속노동자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27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 “내란 세력 청산이 현재 앞에서 좌절할 수는 없다” “노동자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3월 27일 공장과 지역에서 우리 노동자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난동을 금속노동자 투쟁으로 제압합시다.

오늘 우리 투쟁이 이 나라와 민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거운 사명감과 한없는 자긍심을 안고 19만 조합원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으로 달려갑시다!

2025년 3월 21일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

